

#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 익산시, 지역발전 초석... 2026년까지 3단계 프로젝트 진행

익산시가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의 초석을 닦는다. 시는 지난 31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시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3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단계로는 선상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나선다.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철도 역사 8785㎡ 부지 등 연면적 6만1495㎡를 활용해



건립된다.

센터 건립에는 총 2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된다.

센터가 건립되면 철도 선상을 활용해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된다.

센터에는 시내·외버스, 택시, 승용차 등을 위한 환승주차장이 들어서며 상업·주거·문화 시설 등이 함께 입주한다.

이 후 2단계 프로젝트를 통해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며 이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2단계 프로젝트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2600억원이 투입돼 현 차량기지 7만3000㎡ 부지와 주변지역 3만6291㎡가 개발된다.

철도차량기지는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며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은 단지개발 후 분양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권(소룡·산북동·미성동) 30대~50대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주 3회) 온택트 여성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함께하GO! 건강해지GO!’

###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온택트 여성건강프로그램 운영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서부권(소룡·산북동·미성동) 30대~50대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주 3회) 온택트 여성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 신체활동이 필요한 여성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해 주차별로 홈트레이닝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고 이력, 스트레칭밴드 등으로 구성된 홈트레이닝 건강 꾸러미를 제공,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 참여자와 서부권 주민들의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폼롤러, 필라테스 매트 등 운동용품도 대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비대면 홈트레이닝과 더불어 힐링타임으로 심리적인 안정·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캘리그래피,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건강한다이아트 저칼로리 조리실습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안정 시 대면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여성들의 신체 활동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이 가정 내 건강진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454-5175~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9주년 기념 사생대회 개최

군산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유현희)가 개소 9주년을 맞아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2015년부터 올해로 7년째 꾸준히 대회를 이어오며 ‘식사 약속 지키기(손 씻기, 골고루 먹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위생 관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왔다.

이번 사생대회 ‘식사 약속 지키기(손 씻기, 골고루 먹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는 총 464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주제 적합성, 심미성, 표현성, 창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 총 20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유현희 센터장은 “참가한 아이들이 뿌듯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추석맞이 가족 친구에 SNS 안부 이벤트

“군산에 마음을 전할 가족·친구·지인이 있는 타 시·군·구이면 누구나 응모하세요!”

군산시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타 지역민들과 올해 명절 연휴도 조용히 보내야 하는 군산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녕 내 마음을 부탁해!”란 의미를 담은 인스타그램 SNS 이벤트를 신청자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시에서 준비한 상품을 함께 선물하는 이벤트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일간 접수된 사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타지역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군산에 살고있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 안부 인사 겸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 공식 이메일이나 공식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사연을 선정해 직접 준비한 특산물 꾸러미 상품과 함께 명절 연휴 전까지 사연 당사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대, 세종 교육부 앞 릴레이 피켓 시위

### 교수평의회 · 전국공무원노조 군산대지부 · 총학생회 등 동참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 발표를 앞두고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군산대지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 교수, 재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 발표를 앞두고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군산대지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 교수, 재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세종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며, 평가 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며 국민청원을 하

도 했다.

군산대학교는 현재 가결과에 대한 의제기를 한 상태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서 미선정대학에 포함되었으나, 대학구성원, 재학생, 동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폭넓게 퍼지고 있다.

17일 발표 이후 군산대학교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 교직원 및 학생, 동문,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도의원 및 시의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포함된 성명서를 2차례 발표했다.

## 군산시, 백신접종 완료석 표식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관내 음식점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석 표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업모임 인원 상정에서 제외되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이용 편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음식점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음식점의 경우 4인 이상 식

사 모임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음식점주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해당 테이블에 대한 표식 지원으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제한 없이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석을 이용해 편이하 식사할 수 있다.

다만, 백신접종자의 경우 음식점에 어플리케이션 및 접종경쟁서 등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심식당·모범음식점·맛집 등 지정 음식점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기타 업소는 모집 공고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선착순 신청이며,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소통참여·고시공고관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팩스(454-4279) 또는 방문 접수(시청 1층 위생행정과)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추석맞이 특별 도로정비 추진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6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 대학로 등 2706개 노선(1,370km)을 대상으로 특별 도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도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 시설물 정비를 일제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정비를 위해 8개반 32명의 인력 및 자체 보유(덤프트럭 6대, 굴삭기 2대 등) 장비와 단가보수를 통한 포트홀 보수, 구조물(터널·교량·옹벽) 보수, 배수시설 정비, 도로 표지 정비 등을 실시하고,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인도변 가로환경정비 등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상태에 대한 순찰 및 도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 이용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